

손병석 차관 “무관용 원칙으로 건설현장 안전문화 바로 세울 것”

대형 건설현장 합동점검 현장 방문 ... 앞으로는 불시점검으로 실시

□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오전 11시 고속도로 건설공사* 합동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실시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단을 격려했다.

*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화도~양평간 건설공사 3공구(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)

- 국토교통부는 오늘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인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방식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- 이번 합동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본부, 지방청 및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, 노동조합 등도 참여했다.

□ 손 차관은 합동 점검단과 함께 교량 건설현장을 찾아 상부거더 제작 과정 및 교각 시공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, 합동 점검단이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았다.

□ 손 차관은 “오늘 아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「공공 건설공사 전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」을 발표했다.”라고 말하며,

- “해당 대책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충분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투입하여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.”고 밝혔다.
- 이어 “더불어, 꼼꼼하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분함으로써 건설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바로 세워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, 점검단 관계자에게 “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이번 점검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- “기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점검단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면밀하게 철저하게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주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2018. 7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